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일 자	2020. 11. 02	담당자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회 정규석 : 010-3406-2320 김광일 : 010-6343-6050 강은주 : 010-6737-9568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한국환경회의, 2020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국환경회의, 2020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진행

2020년 BEST 의원 없음.

WORST 의원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박덕흠 의원 선정

○ 44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

○ 한국환경회의는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BEST 의원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박덕흠 의원(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을 WORST 의원으로 선정했다. 여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익산 장점마을의 KT&G 유독성 사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돋보였으나 역시 GTX-A 사업에 대한 개발민원 요청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야당에서는 꼼꼼한 준비를 통한 질의의 임이자 의원이 돋보였지만, 역시 4대상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는 큰 한계였다. 뿐만 아니라 부패와 비리의혹의 박덕흠 의원이 국정감사 전체 일정에 참여하지 않아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본 평가는 모니터링단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성평가(질의 태도, 질의주제 적정성 등)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정량평가(정책자료, 보도자료 등 발표 건수)를 참고하여 모니터링단 숙의과정을 통해 확정하였다.

○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 입안·결정·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

의 권한과 의무 중 첫 번째로 꼽힌다. 더욱이 이번 2020년 국정감사는 21대의 첫 국정감사로 새로운 국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정책 고민과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민원에 기반한 개발 사업 요구는 여전했으며,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정책 의제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부터 매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간 위계를 구분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후위기, 생태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자리잡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출발하기 바랬으나 2020년 국정감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붙임 자료_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20년 11월 01일

한국환경회의

2020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분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분야)

2020년 11월

한국환경회의

The National Network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of Korea

1. 평가 취지

-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및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2020년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감사를, 야당인 국민의 힘은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질의를, 정의당은 민생, 불공정, 기후의 3대 위기 극복 정책국감을 예고했으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여당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방어 수준 혹은 지역구 개발사업 민원 쟁기기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야당 ‘국민의 힘’ 역시 국정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보다는 반복되는 특검 주장과 소모적 정쟁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은 지역구 개발 민원은 여전히 개발성장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회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988년 13대 국회부터 현재와 같은 국정감사가 시작되어 40년이 넘게 운영되어 왔지만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기능 보다 정쟁의 터전으로 전락했다는 평가에서 올해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새로운 국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 COVID-19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4대강 사업, 흑산도/제주 공항을 비롯한 각종 환경 파괴적 개발사업 현안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국회의 환경적·생태적 책임감은 적지 않았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부터 매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이는 단순히 의원들을 줄세우거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정책과 행정을 진행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건강한 정책 집행이 진행되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목적은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 역할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점검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책임감을 제고 하고, 행정부 역시 부실한 정책과 행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주요 평가 내용

- 과거에 비해 불필요한 언론 노출용 이벤트, 고탐, 고성, 음박지르기 등은 다소 감소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책과 현안에 대한 부실한 이해, 부족한 환경·생태적 감수성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 한국환경회의의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이 올해의 BEST 의원을 선정하지 못했던 이유이다.
- 특히 박덕흠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전체 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했다. 향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연 2020년 국정감사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비례의원과 초선이 적지 않았지만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건, 홍수피해, 미군기지 오염문제, 폐기물과 재활용 등 다양한 질의를 다루었다. 하지만 질의를 통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피감기관에 대한 부탁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를 통해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이 있었다.
- 여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돋보였다. 익산 장점마을의 암유발 물질의 유해성을 KT&G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낸 질의는 인상적이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정책 효과에 대한 질의 또한 두드러졌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 조사를 통한 침착한 질의는 인상적이었으나 GTX-A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 질의였다. 해당 사업은 자연공원법상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토지이용승낙서 제출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지 공단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여전히 과다 수요 예측으로 인한 경제성 논란과 차량기지 예정지의 법정 보호종 서식지 대책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은 절차마다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점검해가며 진행해야 할 내용이지 공단이 절차를 넘어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

○ 야당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가장 꼼꼼하게 준비하여 질의하였다. 자동차 불량 요소수 판매 관리 부실 문제 등은 인상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과거행적 제기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질의였다.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며, 재자연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 환경파괴 논란의 흑산도 공항 추진을 요청한 노웅래 의원과 백두대간 비법정 탐방로 개방 요구로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 임종성 의원 등 공항, 철도, 도로 건설과 규제 무력화 등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개발사업에 한목소리였던 것은 환경 정책을 다루는 입법기관인지 의심케 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4대강 사업과 산적한 환경현안에 대한 깊이도 부족했으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 2021년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었으나 수해피해 국감에 집중되어 중요한 환경 현안과 정책 질의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수의 의제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재탕에 가까웠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개선책의 모색이어야 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의심케 했다. 전반적으로 주제, 내용, 질의형식, 이해도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 환경부와 산하 피감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슴기 살균제라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에 대한 유해성 문제를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해성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는 장관의 답변은 환경부가 지난 가슴기 살균제 참사에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산하 기관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역시 지적받아 마땅하다. 4대강 사업은 물론 산적한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담당 부처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기 바란다.

3. 평가방식

가. 모니터링 과정

- 한국환경회의(정책소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모집(9월)
- 국정감사 모니터링단 사전 워크숍(9월 24일)

- 국정감사 의의, 진행 과정, 주요 의제 등 확인
- 모니터링 방법과 평가 방법 확인

○ 국정감사 모니터링

- 10월 7일 : 환경부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10월 14일 : 환경부 산하기관(유역청 등)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10월 16일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10월 19일 : 환경부 산하기관(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10월 23일 :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집 취합 (10월)

- 의원 홈페이지/블로그 등

○ 종합 평가 워크숍 (10월 27일)

- 정성평가(질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질의주제의 적정성, 질의태도 등)를 중심으로 정량 평가(정책자료, 보도자료 등)를 참고
- 모니터링단의 숙의토론 과정 및 평가표 작성

4.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분야) 의원별 평가

<표 1.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국정감사 의원별 평가>

국회의원	정당/지역구	점수	의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	침착하게 날카롭게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야당다운 강한 디테일 여전한 4대강 사업 사랑
강은미	정의당 (비례대표)	★★★★	부족한 한방의 아쉬움 명확한 질의내용 전달 필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	4선답지 않은 부족한 전달력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질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새만금 해수유통의 중요성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 군장수군)		다양한 주제에도 부족한 전달력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진정성 시간조절 역량의 아쉬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중요한 환경현안과 적절한 대안 과도한 설명의 아쉬움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	나름 준비한 정책국감 부족한 이해도
김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	꼼꼼한 자료조사에 비해 부족한 질의내용과 태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배려 주제에 비해 아쉬운 이해도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불성실한 질의 태도와 반말 인상적 질문은 없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비례대표)	★★	과도한 버럭과 호통 태양광에 대한 정쟁은 그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	너무 많은 주제 너무 얇은 이해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	알뜰살뜰 지역구 의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멘트
박덕흠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 군괴산군)	불참	일 안하고 월급받는 최악의 국회의원!

* 송옥주 - 위원장으로 평가에서 제외

5. 종합평가

가. 국회의원

-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박덕흠 의원은 위스트로 뽑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꼼꼼한 자료조사, 사전준비, 높은 이해도와 전달력을 갖춘 장철민 의원과 임이자 의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낮은 이해도와 부족한 전달력은 공통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 지속된 현안과 의제에 대한 대책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고, 여당의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배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야당 역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통한 정책개선을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지만 걸쭉기 식 질의에 그쳐 유의미한 개선을 이끌어낸 역량은 드물었으며, 환경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들이라고 하기엔 실망스러웠다. 전반적으로 맹탕 정책국감이라 평할 수 있었다.

○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지역구 개발사업 민원 챙기기는 여전히 환경과 생태의 가치보다 성장과 개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정감사였으며, 불성실한 질의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나. 환경부

○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행정에 대한 감시를 받는 대상이지만 해당 정책을 이행하는 책임 부처로서 정책적 토론을 통해 그 의무와 책무를 드러내는 공간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방어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독성물질의 유해성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보다는 '과학적 검증 우선'을 강조한 답변은 환경부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 가슴기 살균제 참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유해/독성 물질에 대한 선제적 규제, 철저한 관리, 사전예방 원칙에 의거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산하 기관 직원들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의 부패와 비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징계가 필요하다.

다. 총평

○ 한국환경회의는 2017년부터 4년째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국정감사는 보다 나은 한국사회를 위해 국정운영과 정책과정에 대한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견제가 기본이다. 언론 노출용 이벤트나 국회의원의 갑질 공간이 아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정책을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감시와 견제는 호통과 고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드러내고, 부당함을 도려내는 과정이다.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와 낮은 환경 감수성이 기후와 생태 위기 시대에도 여전히하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부록] 국토교통부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종합평가

○ 한국환경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10/16)와 종합감사(10/23)를 온라인 방송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후 평가회의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개별의원 평가보다는 질의 주제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정리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균형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의 발전과 관리, 주거안정, 도로·항공등 모든 교통 전반의 서비스 제공 및 물류를 아우르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총 3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국회 위원회 중 가장 구성원이 많은 편에 속한다.

○ 이번 2020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지역 개발 민원이고 두 번째는 해결 방안이나 대안 없이 추궁에만 그친 주택값 상승 문제이다. 주택 문제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방관하는 기후위기, 그린뉴딜 관련 수송/교통부문의 대안이나 방향 제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타당성도 없고 환경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개발 사업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감에서 이야기 되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민원성 요구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나열되었다. 일부 위원이 지적한 전기차 폭발 사고와 택배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 그나마 유의미한 질의였다고 판단된다.

○ 이후 국감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업무를 몇 가지 제안한다.

- 그린리모델링 추진 :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한 로드맵 설정, 이를 위한 지원책 마련
- 코로나19등 감염병에 따른 교통정책 : 급감한 버스와 지하철 이용, 택시 영업수입 악화 등 대중 교통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 공원일몰제 대응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조성,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책
- 신공항 건설 관련 과제 : 김해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확충시 수요예측, 입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관련 지표 및 자

요구축

- 생활SOC 사업 추진 :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이외에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및 공원등 생활SOC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